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모습가진 나로 살기에 묘법 못써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자리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옛날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고구마 밭을 다람쥐가 온통 다 파서 제치고 전부 훔쳐 가는 걸 봤거든요. 그랬는데 말이에요. 그 다람쥐가 어떻게 그렇게 큰 고구마를 가지고 가나하고 보니까 고구마를 돌에다가 굴려서 올려놓고는 이마에다 대고 딱 붙잡으니깐, 아! 딱 붙잡아지잖아요. 그렇게 해 가지고 뛰어요. 그거 혼자 보기는 정말 아깝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아주 못난 사람보다도 그렇게 고구마를 이고 가는 다람쥐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사는 게 뭐가 다른가, 모습만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른가 하고 생각을 했죠. 지금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같이 앉았는데, 부처님이 허공에 꽉 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없다면 꽉 차기는 커녕 아무 것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이 허공에 꽉 찼다는 거죠. 그러니 딴 세상에 부처님이 계신 줄 알지 마시고 여러분 계신 데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아주 뚜렷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들 중 한사람이래도 원망을 하고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모두 네 탓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내 탓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죠.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아갈 때가 많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각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그 모두가 있다는 거를 아셔야 남의 탓이 하나도 없어요. 잘 했든 못했든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우리가 다시 이 세창에 더불어 뒹글려서 나오고 또 그걸 따라 다니면서 구경하지 않고도 몸을 가지고 애 쓰지 않아도 살수 있지 않은가. 찰라찰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이 있이 사는 겁니까? 삶이 없이 사는 겁니다. 함이 없이 살구요. 그러니깐 모두가 공 했다고 했죠. 그거 한 번 잘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또 이렇게 살고, 이렇다는 게 다 없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빤히 알기 때문에 함이 없어요. 주인공에다 모든 거를 맡겨 놓고 사시라고 말했던 것도, 여러분이 이거 해야겠다 저거 해야겠다, 이거를 원망하고 저거를 원망하고 이거를 생각하고 저거를 생각하느라고 사는 재미가 없이 살아요. 사람이 어디 사는 겁니까 그게. 그러니까 생각은 안 하더라도 저 건너 산이 보이면은 내 정원으로 생각하고 웃고 거길 갈 수 있고 그래야 되겠죠.

잘했든 못했든 내 탓

이런 소리하면 좀 이상스럽게 생각이 되겠지만 어떤 스님이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다리가 몹시 아프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떼어놓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깨어나시라고 자꾸 건드리더랍니다. 그래서 시간이 됐나 보다 그러고 얼른 와서 자기 몸에 다시 들어가서 보니까 다 됐더랍니다. 그래서 아픈 걸 면했답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몸소 경험을 해 보지 않고는 이런 소리 못합니다. 이런 것뿐이 아니라 어찌 말로 새록새록 다 하리까. 사람 사는데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삶음이 있다고 단정지어서 몇 마디도 할 수가 없죠. 한마디도 할 수가 없어요. 규정지어 놓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다가 뗏목이 걸쳐 있으면 한다 안 한다도 없이 그냥 치고 갈 겁니다.

그래 부처님의, 즉 말하자면 마음 법은 보살의 응신이 대신하고 있죠. 그런데 보살의 응신으로서의 하는 법은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한다, 이건 아주 큰 법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여러분이 통신을 해서, 살림하면서 결정짓지 않고 그냥 함이 없이 하시는 것이 제일입니다. 그래 주인공에다 모든 걸 놓고 하시라. 잘하는 것도 못하는 것도 구정물 들어오는 것도 맑은 물 들어오는 것도 탓하지 마시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로 바꿔서 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자세히 말을 해야만 알겠습니까? 아무리 펄펄 끓는 물을 갖다가 놓고 여러분한테 얘길 해도 이건 펄펄 끓는다는 말이니까 그게 단정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몇도나 되는지 얼마나 찬지 뜨거운지 여러분이 그걸 모릅니다. 여러분이 맛을 봐야 그것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법형제 법회 날은 질문하고 서로 토론하기로 했습니다. 구석구석 알아듣는 분은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분은 또 다음에 알아 들어야죠. 이 세상을 간파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럼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자1: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람의 출생과 임신에 대한 몇 가지 의학적인 문제들입니다. 고래로 불가에서는 사람 몸 받기 힘들고 정법 만나기 힘들고 또 정법 만나 수행해서 보리과를 얻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과제가 사람이 되는 건데 사람이 되어 가지고 온전하게 출산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위험과 고통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신이 되고 나면은 임산부의 약 15%가 자연 유산이 됩니다. 그 자연유산은 태아의 결함인 경우가 한 60, 70%가 되고, 산모에게 결함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태아의 결함은 염색체 기형으로 밝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색체 이상이 왜 일어나는지 그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치료법은 없고요. 그래서 전체 임산부의 15%가 유산이 되는 건 상당히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숫자인데 이러한 현상이 왜 생기는 건지 법의 차원에서 어떠한 까닭이 있는 것이며 그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이전에 한마디하죠. 우리 신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럴 때에 나는 그냥 열심히 주인공에 관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관하라고 하고 그냥 있어서는 안되죠. 그 아이 주인공과 통신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하고 보기만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뱃속에 들어 있어도 과거의 자기가 그 모습을 안고 있으니까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이를 지우려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그 얘기를 형성시키는 거니까 잘 데리고 나와야 하잖아.' 알기 쉽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자기가 자기를 수습합니다. 태기가 떨어지려고 한다면 수습하고, 또 떨어지려고 한다면 태반이 옆으로 기울어지죠. 옆으로 기울어지는 반면에 거북하니깐, 돌다가 보면은 목으로 감길 수도 있고 또 목으로 감기기 전에 입을 막을 수도 있으니까 위험한 상태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관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코치가 들어 가야만이 수습을 할 테니까 말입니다.

▲질문자1: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유산은 해결을 하고요, 다음에 임신 초기에 거의 대부분의 산모들이 입덧을 경험합니다. 사람에 따라 경중의 차이는 있는데 어떤 경우는 산모들이 입덧을 못 견뎌서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입덧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아직 뚜렷한 설명이 없고 물론 전혀 대책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가르침을 바랍니다.

▲스님: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애기의 원소하고 자기의 원소하고 결부가 되면 입덧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거 같지만 쉽고, 쉬운 거 같으면서도 모르면 아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부 수습을, 주인공이 다 그거를 해결을 하니까, 주인공이 해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모체에 기반이 있죠. 물론 척추에도 있고 또 머리 정수리에도 있고 왼쪽 다리에도 있죠. 그런 이치가 있지만 그거를 하지 않게 한다고 했다가 잘못되면은 말을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죠.

질문자1: 그렇게 해서 임신이 죽 진행이 되면은 약 11%의 산모들은 40주 열달을 못 채우고 36주 이전에 조산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7%는 35주 이전에 조산을 하는데 이 아이들은 약 15%정도 목숨을 잃고 살아남은 애기도 상당히 많은 수가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 애기를 낳게 되면 또 조산아를 출생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따르는데 이러한 조산을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산이 왔을 적에 그걸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치료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예방법이라고 그러지만 방편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100%가 될 수가 없어요. 방편으로 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손이 닿다, 예를 들어서 갈하자면 손이 닿아 들어가야 그거를 완치시킬 수 있는데 손이 들어가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애기한테 통신이 되면은 즉석 그게 무마가 되죠. 정말입니다. 그거를 자세히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그것이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삼분파로 나누어져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데 합치지 못하면 기울어지게 되고 태반이 손상이 되죠. 잘못하면 태반 절반이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질문자1: 스님 말씀대로 조산의 원인 중에 제일 많은 게 태반이 찢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현상을 태반조기 박리라고 병명을 붙이고 있는데요, 스님 말씀처럼 미리 태반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 조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애기 원소 자체하고 통신이 되면은 잘 알아듣고 있거든요. 애기 모습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 원소는 알아듣거든요. 그래 자기가 부모의 인연을 따라 형성시켰는데 그거를 잘 해야지 않겠어요. 그래서 좋은 아이를 얻으려면 어린애 갖기 전부터 해라. 한달 전부터 해라. 두 달이 되도 좋고 석 달이 되도 좋고, 또 그 뒤에 임신을 했으면 한데로 태에 교육을 자꾸 해야 되겠죠. 좋은 생각으로 좋은 말로 좋은 모습을 얻기 위해서 등 뭐 여러 가지죠. 태반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도 뱃속에서 불구가 돼서 나오고, 별일이 다 많지 않습니까.

엊그저께도 그렇고 그런 일이 드문드문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어린애가 정상적으로 나오지 못하게 됐다고 수술을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삼대 독자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 애기가 떨어지면은 모두 문제가 되고 이혼도 해야 하고 살질 못하게 되죠.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의사가 오진을 한 모양이야. 상관이 없어. 걱정하지 말아 그리고 열심히 관해.' 라고 말했죠. 그 사람 더러 아무리 얘기를 해 봤자 소용없는 거고 또 내가 안다고 해서 아는 소리를 해봤자야 소용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애기만 그대로 있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기의 원소 자체 과거 생 자기와 통신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낳아 가지고 아주 건강하다고 기별이 왔더군요. 그게 의사의 오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의사들은 어째 볼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척추 끄트머리의 그걸로 인해서 애를 돌려서 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차원대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구정물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맑은 물로 갈아서 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모든 게 다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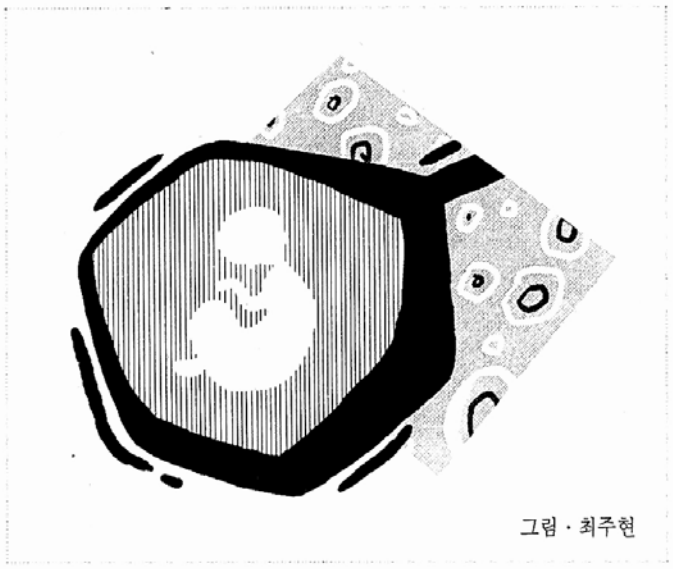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법 배우면 유산·조산 막을 수 있어

헌물 새물 탓 말고 내게 맞게 바꿔 써라

▲질문자1: 산모가 진통을 겪게 되면은 그 중에서 약5%의 경우 애기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하간 오늘날 첨단의 태아 감시장치를 부착시켜서 태아하고 산모를 관찰하면은 한 5%정도의 애기는 여러 가지 나쁜 소견을 보여서 적절한 처치를 하다가 안되면은 제왕절개수술을 해서 끄집어내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 나빠진 애기를 다시 좋게 만드는 게 100% 가능하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수술을 하더라도 나중에 후유증이 생겨서 뇌성마비거나 완전히 예방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기까지인데 이 마음법으로도 일단 분만 진통 중에 나빠진 애기를 다시 소생시킬 수 있는 좋은 묘책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신력 없으면 송장

▲스님: 뱃속에서 나빠진 애들, 거꾸로 되어 있는 애기들 애기가 많거든요. 그럴 때 한번 돌아서 바로 서게끔 되는 것도 자기 원소가 해야죠. 그래서 태교를 해라, 태교를 하면서도 자꾸 관해라 그럽니다. 애기 원소한테 통신이 되면은, 애기를 이끌어주는 원소니깐, 에너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자기를 잘 나오게 하죠. 순산을 하게 하죠. 그런데 순산하게 하는 것은 태반 옆에 애기의 발뒤꿈치가 거기에 딱 닿으면서 누르고 나오거든요. 그래야 빨리 산모도 힘이 생기고 애기도 힘이 나서 나오는 거죠. 어린애 발뒤꿈치가 거길 닿아서 스스로 그렇게 돼야지 억지로 하는 건 아니죠. 스스로 그렇게 돼요. 관해서 통신이 되면은. 즉 말하자면 애기의 원소하고 산모의 원소하고 박사님이 관하는 그 마음하고 동시에 같으면 아주 재참 애기가 힘이 생기고 절대로 나쁘게 되지를 않죠. 그러고 빨리 순산될 수가 있죠. 그러고 더디면은 더딘데로 좋은 수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지혜의 정신력에 대한 문제를 덜 가지고 넣어졌다 이러면은 조금 쉬는 동안에 정신력을 되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정신력이 아니라면 송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때는 사람 사는 걸 봐도 참 욕심난다. 뭐 어쩐다 이런 게 도무지 없죠. 이걸 말로 하려니까 힘드는 군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질문자1: 다음은 비슷한 예가 될는지 모르는데 분만 진통을 겪으면은 약 15%의 애기들은 엄마 뱃속에서 똥을 싸게 됩니다. 태변이라고 하는데요. 똥을 싸게 되면은 이 아이들이 그 똥을 고대로 다 코로도 마시고 입으로도 마셔 가지고 폐 속으로 박히게 되는 경우가 한 15%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나와서 호흡을 잘 못하게 되고 심하면 사망하기도 하고요. 저도 그렇게 해서 사망한 애기를 경험한 적도 있는데 그 이후는 늘 관해서 그런 사망사고는 지금까지 피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애기가 태변을 뱃속에서 싸는 경우에 저희가 의사로써 해 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와 가지고 기도를 청소를 한다든지 흡입하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 줘도 애기가 폐 속에 태변이 박혀 가지고 호흡을 못한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는 예방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변 흡입을 하는 애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될 건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하는 것 외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스님: 우리가 지금 부처님 법을, 마음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부처님 법이라고 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마음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론 방편이 여러 가지죠. 즉 말하자면 내가 그 아이한테 관한다. 그래서 태교를 한다고 말하죠. 그런데 태교를 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조금도 거기에 압박을 받지를 않아요. 그거를 진정 믿고 박사님들은 아셔야 돼요. 애기가 허겁지겁을 해서 뒹글려지면은 그렇게 돼죠. 뒹글려지면 안돼죠. 그러면 문제가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그렇게 되지 않게 관해 주고 또 옛날에는 참기름을 산모머리 위에다 세 번 칠해주죠. 그러면 애기가 절대 손상이 없이 나온다는 결론입니다. 그게 우스운 방편이지만 세 번 찍어 주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삼심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자1: 산모 머리의 어느 쪽에 찍어 주는 겁니까? 앞쪽입니까 뒤쪽인가요?

▲스님: 뒤쪽이든지 앞쪽이든지 박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정수리겠죠. 그런데 이 원소 자체는 과거에도 살았고, 미래에도 살 거고, 현재에도 살고 있으니까 그건 보배 아닌 보배지요. 그러기 때문에 애기든지 어른이든지 모두 이끌어 가는 선장 아닙니까. 모두 이끌어 가는 선장인데 그 선장이 잘 하기 때문에 절대로 잘못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1: 이렇게 해서 분만을 다 마치고 나면은 또 대단히 불행스럽게 상당히 많은 수의 산모들이 하혈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자궁 수축제를 투여하면 출혈이 멎고 별 탈이 없는데 개중에는 하혈이 멎지 않아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는다든지 혹은 생명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만이나 산모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저처럼 마음공부를 안 한 사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일곱 가지 문제가 전부 의학의 힘으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제 이런 환자가 닥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산부인과를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두려움과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사실 제일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산후의 출혈이라고 하는 거는 예측도 불가능하고 또 이게 워낙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출혈이 꼭 수도꼭지 물 틀어 가지고 물 쏟아지는 것처럼 펑펑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 이십분 동안 혈압이 떨어지기도 하고 아주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저도 관하는 도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어떤 방편이 있으시면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이건 방편이 아니고 실지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건 이름이며 방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한다 안 한다 할 게 아니라 그대로 인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위험하니깐 아예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말입니다. 관해서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라고 단정지어서 결정을 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박사님이 자기 공체에 들어 있는 자기 원소가 진짜로 자기라는 걸 믿고 알아야 되겠죠. 딴 생각을 하면서 딴 데로 빠지면 100% 믿어지지가 않죠. 내가 믿지 않는 이상 거기도 믿지 않게 되죠, 서로가.

태아와 통하면 순산

옛날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넌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일어나서 색경을 보아라.' 그래 색경을 보니까 내 상판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생판을 보니까 똑같지?' 그래요. 그래서 똑같은데 그러니까. 거죽에서 볼 때는 똑같지만, 너라고 할 수도 없고 나라고 할 수도 없지만 보이지 않는 정신계에서는 수없이 바꿔진다 이겁니다. 화해서 바꿔지니까 너는 거기에 발끝도 못 쫓아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정말이지 아주 재주가 많고 묘법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써먹지 못하는 것은 이 모습 가진 나가 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죠. 모습 가진 나는 자가 되고 보이지 않는 자기는 부가 된다고요. 묘지가 두 개 있는데, 그건 날 가리키느라고 그랬겠죠. 자로 오면 자가 하나가 되고 부로 가면 부로 하나가 되는데 그건 무슨 연고로 그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의 모습이 나로만 생긴 게 아니라 쓸모 있게, 화해서 변경이 돼야 되겠다 하면은 그냥 그대로 변경이 되고 바꿔지는 거죠. 바꿔져서 실천으로 옮겨지는 거죠. 그러니깐 말로 할 수 없으리만큼 실천이 되기 때문에 얼른 쉽게 말해서 참 묘하다. 이건 도깨비 장난 같구나. 이렇게 선지식들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깐 진짜로 박사님의 원소 자체 주인공을 믿는다면 그런 걱정은 하나도 할 게 없죠. 이런 사람도 있었죠. 어린애를 낳고 하혈을 하는데 피가 코로도 나오고 다 죽게 돼서 숨쉬는 거 꽃고있는데 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내일 퇴원하겠느냐고 물었어요. 내일 퇴원시키겠느냐고, 그러니 미쳤다고 그러지 그거 성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병원에서 나와서는 바로 5분이나 됐나 그런데 다 멎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말로 어떻게 합니까. 그건 말로 할 수는 없잖습니까. 어디가 어떻게 되고 어디가 어떻게 됐다는 거는 다 알겠지만 그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찰나의 한 생각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2: 제가 위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경험한 거를 말씀드리고 질문 올리겠습니다. 위 내시경 검사를 할 때에 항상 관하고 합니다. 주인공 당신이 하는 거지. 나는 심부름만 할테니 환자가 편안했으면 하고 관하고 검사를 합니다. 며칠 전에 위 내시경 검사를 할 때에 구역질을 하는 환자이어서 검사하기 전에 또 관했습니다. 이번에는 관할 때에 좀 더 깊이 관해지며 제가 뒤로 쑥 빠지며 간절해지는 순간 마음이 환자와 통함을 느꼈습니다. 이 순간부터 환자는 편안하게 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 체험을 바탕으로 감기 환자나 위장병환자를 진료할 때에 또 그렇게 관하려 했으나 그렇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잘 낫기만을 바라고 마음만 내었습니다.

☞ 20면으로 계속